동안거 백일기도

동안거 백일기도는 오로지 깨달음의 수행전진을 통하여 영원한 해탈을 향해 나아가기를 서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오늘 선방의 스님들처럼 동안거 기간 동안 부처님 전에 100일 간 열심히 정진할 것을 약속하고 수행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나가야 합니다.
법주사 동안거 백일기도에 동참하시어 기도하고 정진하는 삶,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여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베푸는 보시행을 이어가시는 자랑스러운 불자님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쉼 없는 기도정진으로 2024년을 회향하고 2025년 맞이하는 준비된 불자님이 되시길 바라오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불자님 가정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일정 : 2024년 **11**월 **15**일 ~ 2025년 **2**월 **22**일

동참보시 : 한가족 **20**만원

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예금주 : 법주사)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www.beopjusa.org 2024 | 11

벽화이야기 대웅전 벽화(지붕의 삼보륜) / **이달의 법문** 풍요 속 지혜 / **주지스님 법문** 수행 정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 **걸망메고** 우리 모두 수행하는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 **수행여화** 행복하십니까 / **감로의 글** 법설과 의설에 대하여(2) / **법주사템플스테이/ 사생대회수상자 / 법주사 행사일정 / 법주사 소식 / 미륵재일기도 / 초하루 신중기도 / 광명진언기도 / 지장재일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 생일불공 / 선희궁 원당 아미타불 부처님 조성불사안내 / 갑진년 동지기도 / 동안거 백일기도**

● ●벽화이야기

대웅전 벽화 (지붕의 삼보륜)

'원이삼점圓伊三點'은 지붕의 합각에 그려진 것으로 큰 원에 점 세 개를 그린 것을 말한다.
실담문자의 이자伊字는 3점으로 이루어지고, 이들 3점이 세로줄도 가로줄도 아닌 형태이므로
이렇게 말한다. 이 원이삼점의 의미는 먼저 원이삼점을 둘러싸고 있는 큰 원은
'우주법계의 원융圓融'을 상징한다. 여기서 원융이란 모든 것에 만족하며 일체가 서로 융합한다는
뜻이다. 안에 위치한 세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들이 있다.
세 점은 각기 불佛 법法 승僧의 삼보三寶를 상징하며 이를 삼보륜三寶輪이라 한다.
또는 이 세 점은 각기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 열반적정涅槃寂靜의 삼법인三法印을
상징한다. 또는 이 세 점은 법신法身, 보신報身, 화신化身의 삼신불의 삼위일체를 상징한다.
또 이 세 점은 각각 열반의 3덕인 법신, 해탈, 반야가 서로 상즉相卽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한편 마혜수라(摩醯首羅, Makeura) 곧 대자재천大自在天은 면상에 세 눈이 있는데 세 눈이
정립鼎立하여 그 형상形狀이 이伊자의 세 점과 같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문장紋章으로 '삼보륜三寶輪'이라 이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삼보륜의 의미는 선정禪定과 법륜法輪을 상징하는 일원상 안에 불법승佛法僧 삼보三寶와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을 상징하는 3개의 점이 찍혀 있는 형상이다.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4 11 | 통권 394호



2 **벽화이야기** 대웅전 벽화 (지붕의 삼보륜)
4 **이달의 법문** 풍요 속 지혜 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
8 **주지스님 법문** 수행 정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정덕 스님
10 **걸망메고** 우리 모두 수행하는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지현 스님
12 **수행여화** 행복하십니까 현진 스님
14 **감로의 글** 법설法說과 의설義說에 대하여(2) 고광 스님
17 **법주사템플스테이**
18 **성보박물관 개관기념 '그리고 만들고' 수상자 / 법주사 행사일정**
19 **법주사 소식**
20 **미륵재일기도 / 초하루 신중기도 /광명진언기도**
21 **지장재일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 생일불공**
22 **선희궁 원당 아미타불 부처님 조성불사안내**
23 **갑진년 동지기도**
24 **동안거 백일기도**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68(단기4357)년 11월호 통권 394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충북 라 01005)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덕 / 주간 · 현진 / 편집장 · 남전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법주사

풍요 속 지혜

지명대종사 법주사 조실



10월에 법주사에서 열린 국화축제 개막식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된 모습을 보고 소승은 잠시 어린아이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키가 큰 국화, 중간 크기의 국화, 작은 국화, 노란색,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 등의
여러 가지의 빛깔을 지닌 국화들, 그리고 한쪽 편에는 핑크뮬리도 있고,
꽃이 피기를 기다리고 있는 작은 꽃봉오리의 국화들도 있었으며, 갖가지 모양을 그려낸
국화의 장엄은 마치 세계는 한 송이의 꽃과 같다는 세계일화世界一花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였습니다.

꽃이 피니 부처를 본다고 하였듯, 이 세상에 꽃을 보고 짜증을 내거나 화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쁜 꽃들이 한두 송이도 아니고
십만 송이나 되는 수많은 꽃이 조화를 이루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소승은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인간 세계도 그처럼 아름답고 풍요롭고 조화로운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행무상이라고 하는 이치가 현실 세계에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법주사에서 보았던 그 아름다웠던 꽃들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시들고, 색이 바래고,
잎이 지지만, 내년을 기약하는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산과 들의 나무들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다가 가을엔 단풍이 들고, 이들 역시 겨울을 맞이하게 되지요.
우리는 여기서 지혜롭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에는 의식주나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하는 일 등에 있어 걱정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바람이나 예상과는 다르게 얼마든지 변해갈 수 있고,
인간의 수명 또한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명이 다하여 목숨을 마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그러한 단멸론斷滅論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헌 옷을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윤회를 거듭한다고 합니다.
변화하고 생멸하는 것들은 모두 참된 나라고 할 수 없기에 제법무아諸法無我의 이치를 설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늙고 병들고 죽는 때가 온다는 것이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를 미리 대비하는 삶도 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 들이닥칠 무상함과 고통 등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한다면,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하거나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시안적으로 나와 내 것을

중심으로 하는 삶에서 벗어나 미리 멀리 내다보고 베풀며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승불교의 이상은 나와 남이 함께 깨달음을 향해 가는 것으로서 그 방법은
주변을 섬기고 도움을 주는 '이타행利他行'입니다. 남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
무엇이든지 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이들은 보살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주요 실천 덕목인 육바라밀 수행 가운데 제1 바라밀로
보시바라밀을 제시합니다. 무엇이든 나누고 베푸는 것이지요. 상대방이 감사해하거나,
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행하고, 다른 이와 경쟁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며,
상대가 베푸는 것을 보고 내놓는 것이 아니며, 보시행을 통해 손해 봤다는 생각이나 이겼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보시바라밀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도 넓고 생활도 여유로우며, 보시가 좋은 줄을 알면서도 선뜻 보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겁생래多劫生來로 익혀온 습관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세생생世世生生의 업으로 이어져 온 습관은 하나의 장애가 되어 마음을 좁게 만들고,
작은 것에 집착하며 살게 합니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시시각각 자기의
마음과 행동을 관찰하여 마음을 바꾸고 보살행으로 습관을 바꾸는 일상생활 속의 보살도
수행이 필요합니다.

보시행은 반드시 재물로써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말이나, 위하는 마음,
섬기는 몸짓, 공감하는 표정, 눈빛 모두가 보시입니다. 세상에 줄 것이 없어서 보시를 못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불도를 얼마나 제대로 닦아 왔는지, 그리고 전생의 업장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점검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남을 위해 얼마나 베풀고,
얼마나 이로운 일을 하는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혹자는 세상이 경쟁으로 치열한데 남을 위하고 섬기며 보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소승은 집착 없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가나 평가를 기대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주변을 살피고 위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마음의 평화와 풍요로움은 저절로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의 과정에서도 오직 행할 뿐, 깨달음이나 열반에 매달리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마음의 집착을 걷어낼 때, 마치 하늘에 시커먼 구름이 걷히고 나면 태양이 밝게 빛나듯,
지혜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대승불교의 주요 실천 덕목이 육바라밀이라 했지요.
육바라밀 중 제2 지계바라밀持戒波羅蜜은 주인공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율을 잘 지킴으로써 주인공으로서 살아감에 아무런 장애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소극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주변의
모든 존재에 대해 선善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비움으로써 가능한 일이겠지요.

모든 법의 공空한 이치에 통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하심下心하고 섬기며,
베풀고 나누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보살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행 정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정덕 스님 법주사 주지

오늘은 올바른 정진과 수행에 대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천차만별로 다양하지만, 불교에서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각자 다르게 변해간다고 합니다. 각자의 업이나 처한 환경 여건에 따라 잘 나가는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 아프던 사람이 건강해지고 건강하던 사람이 아픈 것처럼 끊임없이 변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주 자연의 정립한 진리인 법입니다.
어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일 뿐 누구든 변해간다는 것은 철칙입니다. 다만 변해가는 것이 어떻게 변해 가느냐가 관심사입니다.
〈불설비유경〉에 보면 파사익왕이 부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노력해 성공하여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환경이 좋고 잘 나가던 사람이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왜 일어나는 일입니까?" 하고 여쭈니 부처님께서는 쉬우면서도 간단하게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네 가지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법문을 하십니다.

첫째 나쁜 환경에서 더욱더 비참한 환경으로 떨어지고,
둘째 나쁜 환경에서 밝은 환경으로 바뀌고,
셋째 행복한 환경에서 어둡고 힘든 환경으로 바뀌고,
넷째 밝은 환경에서 더 행복한 환경으로 바뀌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법에 의해서 우리는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나쁘게 변해 가는 사람이 있고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향상돼서 변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점에서도 적용되는 인연법입니다.
첫째, 좋지 않은 상태에서 더욱 좋지 않은 어두운 삶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른 업을 짓지 못해서 그런 곳으로 떨어집니다.
바른 업을 지어 수행하면 밝은 곳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① 신세 한탄만 하며 세상과 조상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세상이 뒤집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② 술이나 마약을 가까이하고 ③ 힘든 삶에서 손쉽게 벗어나려고 한탕주의를 하며 (도박, 사기, 도둑질, 강도) ④ 불공평한 세상에 복수하기 위해 비행을 저지르며 자신의 불행을 세상 탓으로 돌리고(무차별 살인, 방화 등등) ⑤ 자포자기해서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안 보이고(게으르고 노력 부족) ⑥ 그릇된 법을 따르며(점쟁이 나 무당을 찾아 정도에서 벗어나는 업을 짓는다) 이러한 여러 가지 행위들은 과보를 자기 자신이 고스란히 받으며 어둠에서 어둠으로 이어갑니다.
둘째, 반대로 어려운 환경에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는 사람은 타고난 불행이나 역경을 딛고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않고 고난과 역경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자신을 극복하고 흔들림 없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알지 못하듯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 강한 정신으로 자신의 성공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셋째, 좋은 환경에서 나쁘게 되는 것은 유복한 환경이 오히려 나태와 방일, 쾌락을 불러 뭐든지 쉽게 되는 줄 알고 헛된 것에 탐닉합니다. 나는 타고난 사람이기 때문에 뭐든지 잘될 것이라는 막연한 자아도취 자만심에 빠져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넷째, 좋은 경계에서 더욱더 좋은 경계로 발전되는 사람들의 유형은 복된 여건을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아 자신을 진실하게 다스리며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릇된 것을 경계하며 지켰던 경주 최부자의 예처럼 검소하게 살며 주변에 나눠주고 베풀며 살면 됩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불설비유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지 진리에 의해서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정연한 이치입니다. 부처님 교훈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은 되는대로 막 되는 세상은 아니라는 것, 바른 마음 바른 정신을 가지고 정진하면 끊임없이 발전해서 행복하게 되고, 바르게 살지 못하면 우주 자연의 천지 이치에서 불행하고 어둡게 살 수밖에 없다는 이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행 정진'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개체가 형성돼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 길을 실천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세생생 나쁜 업연이 천성이 된 습관을 끊어버리고 매일매일 노력으로 허망한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밝은 기운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법주사 신도 한분 한분 모두가 묵은 업장이 소멸하도록 꾸준히 수행 정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겠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수행 정진 바랍니다.

우리 모두 수행하는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지현 스님 법주사 포교국장



불자들에게 불법이란 세상 법을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어 원만한 생활을 하면서
또한 이에 얽매이지 않고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익히고 실천하여
자신과 가정을 밝게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이라고 합니다. 또 수행이란 바르고
참되게 사는 생활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처가 되는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성이라 합니다. 불성이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우리 불자는
모든 인간의 불성을 인정하고 그 불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불성을 갈고닦는 것이
불교를 믿는 사람의 본업이라 했습니다.
불성을 갈고 닦는 방법은 착한 일은 무엇이든
전부 실행하는 것입니다. 남의 행복을 생각하고
도와주는 친절 행위, 세상을 밝게 하는 봉사행위를
실천하므로 자신의 인격을 높여가는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은 무엇이든 주저함,
즉 망설임 없이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인연을 가져오는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성을 다 갖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입니다.
그런데 그 불성이 무한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어온 악업에 의해 어둠 속에 묻혀서
갇혀있는 것입니다. 불성을 찾는 길은
오직 불법을 만나야 합니다. 불법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을 불법이라 합니다.
불교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을 설하신
가르침이라 하여 불교라 합니다.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수행하는 것을
불도라 합니다. 불법은 반드시 착한 일을 실천하고
바르고 참되게 사는 생활법입니다.
먼저 가정에서부터 불교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어
자비로운 마음과 사랑스런 말로써
서로 책임을 다해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야 합니다. 가정생활은 서로 인내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내 가족이라고 함부로 대해서는 업장만 쌓여가는
장소가 되는 것이니, 함부로 가족을 대하지 말고
부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가족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단 없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자비와 희생과 봉사의 보살행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사회와 나라도 함께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해 갈 것입니다.
우리 불자는 생활을 불교, 불교를 생활로
실천해야 합니다.
불교가 생활 가운데 있고 그것에 의해서
가치 있고 밝고 바른생활이 이루어집니다.
불교는 모든 악의 근본이 되는
탐 · 진 · 치 · 즉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음부터
버리고 내려놓고 닦아가야 합니다.
모든 악의 근본이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슨 행을 하던지 항상 살펴보시고 이것은
욕심이 아닌지, 이것은 화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부드럽게 해도 될 일인데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잘하는지,
또 이것이 이치에 맞는 행인지 아닌지 깊이 생각하고
행해야 합니다. 급하면 실수가 많습니다.
차근차근 노력하여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자신을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꼭 함께 가는 것이 수행 정진입니다.
먼저 수행을 철저히 실천해야만 귀와 눈이 열리고
지혜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의 공덕은 오래된 신도나 첫 신도라도
정성과 믿음으로 열심히 수행정진 '나'라고 하는
집착을 버리고 천만가지 번뇌를 극복하여
본래마음, 참 마음, 끝없는 허공처럼 텅 비어
아무것에도 걸림이 없고 티끌 한 점 없이
맑고 밝은 청정한 그 한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마음 닦는 공부입니다.

행복하십니까

현진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아침 산책길에서 꽃무릇을 만났다. 영산홍 숲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맑은 얼굴과 마주할 수 있다. 올여름 그렇게 무더웠는데 별 탈 없이 계절을 알려주는구나 싶어 반가웠다. 여기의 꽃무릇은 아주 오래전 잠시 머물다 갔던 어느 스님이 알뿌리를 주문하여 심어 놓은 것이다. 그때의 사람은 떠났어도 해마다 꽃은 피어 그의 안부를 전하고 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한 때'를 열심히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꽃이 그 한때를 위해 최선을 다하듯 우리도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외면하면 안 되는 것이다. 삶의 과정에서는 과거도 미래도 그때가 아니다. 그것은 지나 간 '한 때'이며 아직 오지 않은 '한 때'이다. 그러므로 오직 지금이 그 한때인 것이다.

일전에 퇴직을 앞둔 상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행복의 가치를 설명하면서 다음 세 가지를 유념하라 조언했다. 그때는 일할 때였고 지금은 퇴직한 때였다. 그 사실을 인정하며 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

첫째, 남의 눈치 보지 말 것.
둘째, 착한 역할 그만할 것.
셋째, 의무감에서 해방될 것.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사람은 자기 행복이 줄어들 소지가 크다. 너무 타인에게 신경 쓰다 보면 내면의 뜰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삶은 결국 남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비교하는 습성으로 발전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결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나만의 정원을 잘 가꾸면 되는 것이다. 그 어떤 삶이든 비교하면 불행해진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알베르키뮈도 "행복해지고 싶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니 주변 인연에 너무 의식하지 말고 기대지 말아야 한다. 적어도 쉰 살을 넘기면 더 그래야 한다. 그런 일로 남은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껏 살아오면서 멋진 아빠, 현명한 엄마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친정, 시댁, 처가 할 것 없이 그 역할에도 충실했다. 때론 귀찮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그 일에 참여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착한 역할은 그만하라는 뜻은 싫으면 싫다, 힘들면 힘들다라고 표현하라는 것이다. 억지로, 싫은데 하지 말라는 것. 시집와서 30년 정도 했으면 그정도 말할 자격은 있다. 늘 착한 며느리, 착한 사위로 사는 게 지겨울 수 있으므로 살짝 거부하고 반항하면 내 행복은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의무감에서 해방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내 손길이 필요하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때 나의 인생과 마주할 수 있다. 무한한 책임감에서 한 발짝 물러날 필요가 있다. 나 아니어도 남은 행복할 수 있다. 내 행복을 저당 잡히지 말라. 부모가 다 해줄 수는 없다. 이제는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 될 때가 아니고 등대가 되고 등불이 되어 줄 시기. 이미 성장한 자식을 위해 뭐든 다해줄 수 없다. 어머니 외에 너무 이름표가 많다. 그것을 하나하나 줄여야 삶의 무게도 가벼워질 것이다.

모두 수고했다. 내리막이냐, 오르막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등짐이다. 그 짐이 삶을 힘들게 하지 않았던가. 이제는 꽃짐도지지 말라. 그것도 짐이기 때문이다. 홀로 가볍게 가볍게. 혼자 떠나는 여행은?

바람소리인가
물소리인가 했더니
세월 가는 소리네

어느 노부부의 정원에서 읽었던 글귀다. 팔순이 넘은 노인에게 공양 대접을 모셨더니 "세상에 맛난 게 없어요, 세상에 즐거운 것도 없어요"라고 했다. 몸은 아프고 입맛이 까칠하니 그도 그럴 것이다. 지친 노구를 이끌고 다니는 일만해도 버거울 테니. 결국 맛나게 먹고,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좋은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다.

우리 인생은 결국 '독고獨孤 다이die' 외롭게 살다가 떠나는 여정이다. 그러니 노년마저 다른 일에 시간을 뺏기지 말아야 한다.



법설法說과 의설義說에 대하여 (2)

고광 스님 법주사 노전



〈지난호에 이어서〉

횡설수설橫說竪說이란 말의 유래는
절집에서 나온 말로, 부처님 경전을 읽다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다가 저기서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옛 선배 스님들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선 가로(橫)라고 말했다가
저기서는 세로(竪)라고 말한다고 해서
횡설수설橫說竪說이란 표현을 쓰게 되었고,
지금은 '말도 안 되는 말'처럼 와전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장을 이해하는 문해력이
부족하고, 부처님께서 정의하고 쓰신 단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생긴 일입니다.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장에서 쓰이는 기초 단어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초 단어들은
집을 지을 때 쓰이는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춧돌을 잘못 놓는다면
그 위에 지어진 집은 온전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경전에선
어떻게 서술되었는지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경전은
조계종도曹溪宗徒라면 누구라도
한 번 들어본 적이 있는 조계종의
소의경전所依經典 금강경金剛經입니다.

금강경 제7분 무득무설분無得無說分을 보면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耶? 如來 有所說法耶?
須菩提言 如我解佛所說義
無有定法名阿耨多羅三藐三菩提
亦無有定法如來可說. 何以故 如來所說法
皆不可取 不可說 非法 非非法 所以者何 一切賢聖
皆以無爲法 而有差別."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무비 스님은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래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는가?
또 여래가 설법說法한 바가 있는가?'
수보리가 사뢰었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에는
고정된 그 무엇으로써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또한 고정된 그 무엇으로써 여래께서
설법하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래의 설법은 모두가 취할 수가 없으며,
말할 수도 없으며, 옳은 법이 아니며,
그른 법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체 성현聖賢들은 모두가 조작이 없고
꾸밈이 없는〔無爲〕 법으로써 온갖 차별을 꾸며서
펼쳐 보였기 때문입니다.'"라고 번역했는데,
일반적인 번역입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 글을 읽고
또 읽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글을 읽는 독자도 대체로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耶? 如來 有所說法耶?"란
문장에서 어의운하於意云何는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은 게 아닙니다.
"마노意(mano)에 대하여 어떻다고 말했는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문장은
"수보리야! 의근意根(mano)의 작용에 대하여
어떻다고 말했는데, 여래가
아뇩다라삼먁삼보리(최고의 깨달음)를 얻었다고
하고 여래가 말한 법法이 존재한다고 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마노意(mano)와
법法(dharma)에 대한 설명은 앞으로 연재될 내용을
읽다 보면 자연스레 알게 될 것이니,
궁금하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須菩提言 如我解佛所說義
無有定法名阿耨多羅三藐三菩提."란 문장도
"수보리는 '자아自我(atman)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여 의설義說(근거 없는 거짓말)이
되어서 확정할 수도 없는 법(無有定法)을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불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문장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어서 하신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래如來(tathāgata)'라는
말 때문입니다. '여래'라는 말은 부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쓰셨던 단어로 제자들은
부처님을 절대로 '여래'라고 부를 수도 없었고
부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亦無有定法如來可說. 何以故? 如來所說法
皆不可取 不可說 非法 非非法 所以者何 一切

賢聖 皆以無爲法 而有差別.”은
“또한 ‘확정한 법도 없는 것’을 여래가
가히 설했다고도 한다. 어째서 그러하겠는가?
여래가 말하는 법法은 가히 취할 수도 없고
가히 설說할 수도 없으며 법法도 아니고
법法이 아닌 것도 아니라고 한결같이 말해(皆)도
최초의 원인자가 되는 어떤 것을 일체一切라고
하고, 현인이나 성인은 무위無爲로써의 법法을
한결같이 말해(皆)도 존재로 차별된다고
하기 때문이다.”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개皆라는 단어가 지금은
“모두”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구마라집鳩摩羅什역에서는 언제나
“한결같이 말한다(比:한결같이+白:말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또한 소이자하所以者何는
“원인자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대답으로 전변설轉變說을 주장했던
바라문婆羅門은 “브라만(Brahman)”,
적취설積聚說을 주장했던 신흥사문新興沙門은
지수화풍地水火風의 사대四大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깨달아 해탈해야 할 대상은
전변설을 주장했던 브라만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선남자善男子 선여인善女人이
‘브라만 가문의 남녀’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최초의 원인자所以者何를
브라만이 나누어진 자아(我 ātan)로써의
일체一切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이 설명이 독자의 입장에선
평소 들었던 설명이 아니라 매우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부처님 당시의 사상들과
그 사상들을 일일이 비판하고 바로잡은 부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필자의 설명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예와 금강경의 예를
보더라도 의義 자라는 단어 하나를 ‘옳다’라고
해석할지 ‘거짓’이라고 해설할지에 따라 그 의미가
확연하게 달라짐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전을 대할 때 부처님 주변의 사상과
부처님의 관계를 면밀하게 살피지 않는다면
외도의 생각을 부처님의 사상인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현재의 일만도
아닙니다. 경전을 펼쳤을 때 거의 예외 없이
의설義說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 이해한 의설이 난무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법주회보를 읽는 독자라면 아마도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매우 궁금할 것입니다.
불교 경전을 읽을 때 ‘의義자가 등장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경전을 새기는 습관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칫 거짓 주장에 미혹되어 해탈하기는커녕
나락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일생 허송세월로
낭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법주사法住寺가 “법이 머물러지는 절”이란 뜻이니
적어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法이
머물러져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법주회보의 독자들은 과연 법法이
아로새겨져서 머물러 있습니까?

1500년사찰 법주사 템플스테이
[2023년도 최우수 템플스테이 사찰 선정]

속리산의 품에 안긴 호서제일가람 법주사에서 사람들은 힘을 얻습니다.
법주사의 품 안에는 천 년의 세월 속에도 그 아름다움과 격조를 발하고 있는 국보와 보물이 가득합니다.
법주사는 천 년이 넘는 역사를 통한 미륵신앙이 전해져 내려왔던 곳으로서 기도와 예불 수행 등
기초적인 불교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주사템플스테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N | 법주사 템플스테이

예약 및 문의전화 : 043-544-5656

성보박물관 개관기념 '그리고 만들고' 수상자

대상작품







사생대회 수상자

대　　상 : 예원학교 **한수연**
최우수상 : 증평 형석고등학교 **박시혁**
특 별 상 : 동광초등학교 **이예진**
우 수 상 : 괴산 보광초등학교 **조이준**
우 수 상 : 우리나현유치원 **김시우**
장 려 상 : 화성 한마음초등학교 **전영서**
장 려 상 : 보은 삼산초등학교 **김민주**
장 려 상 : 세류초등학교 **이소미**

전통등 수상자

특 별 상 : 최정주, 유경미, 신민경

2024. 11 법주사 행사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음 10.1 초하루 신중기도입재 보현회 법회	2 2 광명진언기도
3 3	4 4 신중기도회향	5 5 합창단법회	6 6	7 입동 7	8 8 약사재일	9 9
10 10	11 11 다도반법회	12 12	13 13	14 14 수능100일기도 회향	15 15 보름 동안거결제	16 16 다라니독송기도 미륵재일 법주회 법회
17 17	18 18 지장재일 지장회법회	19 19	20 20 만공대선사 다례	21 21	22 소설 22 법주사 동안거포살 (오후 1시)	23 23
24 24 관음재일	25 25 다도반법회	26 26	27 27	28 28	29 29	30 30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 대전지역 – 선샤인호텔 앞 오전 8시 10분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법주사 소식



9월28일 서울 불교도대법회



10월 8일 문화재안전 소방훈련



10월 18일 법주사 국화축제
(개산1472주년 법주사 개산대재)



10월 18일 법주사 국화축제
(사찰음식과 세계음식의 만남 '백미백락')



10월 18일 법주사 국화축제
(사찰음식과 세계음식의 만남 '백미백락')



10월 18일 법주사 국화축제
(도민행복 숲속음악회)



10월 25일 고추장울력
(관음회, 보현회)



10월 25일 고추장울력
(보현회, 관음회)

※ 국화축제에 큰 도움을 주신
관음회, 보현회, 합창단,
다도반 봉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고추장울력
보현회, 관음회 회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미륵재일 기도



미래세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중생을 다 건지시고 용화정토를 이루실 미륵부처님께
법주사에서는 매월 음력 16일 미륵재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미륵부처님의 가피 받으시어 불자님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기도일정 2024년 **11**월 **16**일 〔매월(음) **16~18**일〕
동참보시 한가정 **2**만원

초하루 신중기도

매월 초하루 3일간 올리는 신중기도는 매월초 불보살님과 호법 선신들게
예불공양을 올림으로써 한 달을 잘 열어가기 위한 신심의 발로입니다.
화엄성중님께 예를 다하여 정성껏 기도해 보세요.
그 가피공덕이 세세생생 전해 질 것입니다.

기도일정 2024년 **11**월 **1~3**일 〔매월(음) **1~3**일〕
동참보시 한가정 **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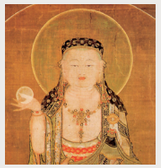


광명진언기도

광명진언은 '광명'이라는 단어의 뜻 그대로 깊은 죄업과 어둠에 있을지라도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광명의 힘으로 밝은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진언입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인연 지으시어 공덕이 나날이 수승해지며
늘 성취하시는 일상을 이어나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기도일정 2024년 **11**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2시까지)
동참보시 한가정 **2**만원

지장재일기도



'모든 중생을 구제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기리는 날입니다.
기도나 공양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삶을 돌아보고 부처님의 제자로
정진하겠다고 발원을 세우고 점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원력을 세우고 발심을 할 때 비로소 그 원은 성취될 수 있습니다.
지장재일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시는 공덕을 지으셨으면 합니다.

기도일정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매월(음) **18**일〕
동참보시 한가정 **2**만원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미묘하고 거룩한 큰 말씀이란 뜻의 신묘장구대다라니는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아픔을
자비의 눈으로 보살피고 구원의 손길을 펼쳐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비의 주문으로 병고를
겪거나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는 중생들을 치유하는데 영험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인연 지으시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의 건강과 평안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일정 2024년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2시까지)
동참보시 한가정 **2**만원

생일불공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더없이 기쁜 날, 신도님과 신도님 가족분들의 생신을 맞아
부처님전에 정성으로 앞날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축원공덕 지으세요!

동참보시 **2**만원 (생신일로부터 3일간 기도축원 올려드립니다)



법주사 기도동참 계좌안내 : 농협 403020-51-010482(예금주 : 법주사)

선희궁 원당 아미타불 부처님 조성불사안내

속리산 법주사에서는 선망조상님과 인연영가님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선희궁 원당에 만년위패를 봉안하고 그곳에 아미타불 부처님을 새롭게 모시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부처님께서는 서방정토의 극락세계에 머무르시면서 법을 설하여
모든 중생들을 성불시키시는 불보살님이십니다.
아미타불은 무량한 수명을 가지고 한없는 광명을 지니시는 부처님으로
뭇 생명 있는 자들은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통해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위없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주사의 아미타불 부처님 조성불사는
불자님들께 참으로 뜻깊은 불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미타불 부처님 조성불사에 동참하시어 그 인연의 공덕으로 현세의 무량복덕을
누리시고 내세에서도 극락왕생하시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모든 인연과 중생들이 아미타불 부처님과의 인연으로 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선희궁원당 아미타불 조성불사 : 한가족 **50**만원 (복장에 이름 넣어드립니다)
불단조성불사 : 한가족 **30**만원

- **선희궁원당 불사계좌안내** : 농협 **351-1333-5675-83** (법주사)
- **문의 및 안내** : 원주실 (043)543-4755



갑진년 동지기도



한해의 마지막 절기인 동지는 24 절기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 이 날을 기점으로 낮의 길이가
다시 길어집니다. 하여 동지는 '작은설'이라고도 하며
한 해의 시작으로 보아 묵은해를 보내고
순조롭게 새해를 맞이하기를 염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해를 돌이켜 감사와 참회를 하고 새해의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서원을 세우며 정성스럽게 팥죽을 쑤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비의 손길로 이웃과 함께 팥죽을 나누는
공덕을 짓는 날이기도 합니다.
신도님들 법주사 갑진년 동지기도 동참하시어 묵은 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함에 있어서 부처님 전 경건하게 기도하여 모든 장애와 액난을 극복하시고
나눔의 공덕 지으시는 맑고 향기로운 불자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일정 : 2024년 **12**월 **15**일(일) ~ 2024년 **12**월 **21**일 (토, 동지)
동참보시 : 한가족 **3**만원 [동지팥 · 찹쌀 · 설판 (떡/과일 외 나눔꺼리 접수받습니다)]
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 (예금주 : 법주사)

